

12 국제수지표



- 국제수지표는 대외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
- 국제수지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작성
- 국제수지표는 경상계정, 자본계정 등으로 구성
- 국제수지표 작성 실례
- 적정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는 국민소득의 증대와 고용안정에 기여



국제수지표는 일정기간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대외거래는 상품, 서비스, 소득, 이전 등의 거래를 포함하는 경상거래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자본거래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맞추어 국제수지표에서도 두 거래의 결과가 각각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기록된다.

이와 같이 외국과의 거래가 모두 기록되는 국제수지에서 보다 중요하게 관찰되는 거래는 경상거래이다. 경상거래는 산업생산, 고용, 국민소득 등 국민경제 각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상거래에서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아 경상수지 흑자가 되면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고용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벌어들인 돈으로 그동안 외국에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가 되면 경상수지 흑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소비 생활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돈을 차입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외채가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입이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고용의 안정 등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수지표는 대외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어 쓰지 않고 남이 만든 것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국가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외국에 팔아 외국의 돈 즉 외화를 벌어들이고, 필요한 물건을 외국으로부터 사들인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소득과 지출의 내역을 기록하는 가계부를 작성하고 이 기록을 통하여 과거의 거래내용을 돌이켜 봄으로써 미래의 살림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 나라에 있어서도 외국과의 거래내용을 기록 정리하고 그를 토대로 향후 그 나라의 산업정책이나 외환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수지표는 바로 이러한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중 국가간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이다.

여기서 첫째로 「일정 기간중」이란 말은 국제수지통계가 어느 한 시점에서의 대차상황을 기록한 스톡(stock)개념이 아니라 일정 시점 사이에 발생한 거래를 집계한 **플로우(flow)통계**임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국제수지통계를 월별 및 연별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나라에 따라서는 분기별 또는 연별로 작성하기도 한다.

둘째로 「국가간 거래」라 함은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주 소재지가 국민경제 영역 내에 있는 경제주체(거주자)와 영역 밖에 있는 여타 경제주체(비거주자)간의 거래를 의미한다. 이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경제주체가 단순히 어디에 살고 있으며 국적이 어디냐 하는 지리적 영역이나 법률상의 국적보다는 경제활동에 있어 **이익의 중심**(a center of economic interest)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통상적으로 경제주체가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활동 및 거래를 수행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을 경우 이익의 중심이 그 나라에 있다고 본다. 즉 개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일지라도 1년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생산활동에 참여할 때는 이익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인정하지만 해외교포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비거주자가 된다.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이 어느 나라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따라 거주성을 구분하는데,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해외주둔 정부기관은 예외인데 외국정부의 대사관, 영사관, 군사시설 등은 그들이 주재하는 경제권에서 치외법권 지역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국에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보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미군이나 미대사관은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가 된다.

셋째로 「모든 경제적 거래」라는 말은 모든 형태의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재화 및 서비스, 소득, 자본, 국제간의 증여 등 일체의 거래를 망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로 「종합 기록표」라 함은 국제수지표가 수출입, 서비스, 소득 등 실물거래와 금융거래가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객관적 기준에 의해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수지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작성

국제수지표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계상시점, 기록방법, 평가가격 등 작성방법에 관한 원칙이 필요하다. IMF는 「국제수지 매뉴얼」에서 그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각 나라들로 하여금 동 매뉴얼에 따라 국제수지통계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첫째, 수출입상품의 평가에 적용하는 가격은 수출경제권의 수출항(공항)에서 지정된 배(비행기)에 선적하는 비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수지상의 **수출입은 모두 본선인도가격(FOB가격)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통관통계의 경우 수출은 본선인도가격(FOB가격)으로, 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CIF가격)으로 각각 평가되고 있으므로 수입의 경우에는 통관기준 수입에서 운임과 보험료를 차감하여 국제수지기준 수입을 산출한다.

둘째, 거래액의 인식에 있어 **경상계정은 총액주의**에 따라, **자본계정은 순액주의**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경상계정은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수입과 지급을 총액으로 차변과 대변에 각각 분리하여 기록한다. 자본계정은 순액주의 원칙에 따라 세부항목별로 자산항목에는 자산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자산 증감액을, 부채항목에는 부채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부채증감액을 각각 기록한다. 경상계정에서 총액계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경상계정 항목의 경우 차변과 대변은 각기 다른 요인에 의해 변동하기 때문이다. 가령 여행수입과 여행지급이 다 같이 여행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분류되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행수입과 지급은 거의 무관하다. 자본계정에서 순액주의 원칙을 따르는 이유는 거래의 총액자료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순액변동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다양한 통화나 SDR 등으로 표시된 국제거래를 하나의 기준 계산단위통화(예 미달러화 또는 자국통화)로 환산할 때 **거래당일의 실제 시장환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거래당일의 실제 시장환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단기간의 평균환율을 이용해야 하며 수수료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준환율을 사용하여야 한다.

넷째, 거래의 계상시점은 **발생주의**를 따른다. 즉 경제적 가치가 생성, 변화, 교환, 이전 또는 소멸된 시점을 거래의 발생시점으로 본다. 예를 들어 채권 및 채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을 거래의 발생시점으로 보고 이를 계상시점으로 삼는다. 이와 같이 계상시점을 정하는 이유는 여러 경제주체들의 모든 대외거래결과가 복식부기 원칙을 따르는 국제수지표의 대차양변에 동시에 계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수출의 경우 인도시점을 거래의 발생시점으로 보고 계상하는데 통상 인도시점과 통관시점간에 시차가 거의 없어 통관시점을 거래의 발생시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인도시점과 통관시점의 시차가 큰 선박수출의 경우에는 인도시점을 발생시점으로 본다.

다섯째, 회계원칙은 **복식부기원칙**(double entry book-keeping system)을 따른다. 복식부기원칙은 모든 개별 거래가 동일한 금액으로 대·차 양변에 동시에 계상되는 원칙을 말한다. 이중 한쪽은 대변(credit)이라 하며 산술적으로 正의 부호를, 다른 쪽은 차변(debit)이라 하며 산술적으로 負의 부호를 갖는다. 따라서 복식부기원칙에 의거 작성되는 국제수지

표는 모든 대변항목의 합계와 모든 차변항목의 합계가 일치하게 되어, 국제수지표 전체의 순수지(net balance)는 원칙적으로 0이 된다. 그러나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대변과 차변이 서로 다른 자료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집계 결과 대변과 차변의 합계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오차 및 누락」이 생길 수 있다.

국제수지표는 경상계정, 자본계정 등으로 구성

국제수지표에는 외국과의 거래 특성에 따라 경상계정과 자본계정 및 준비자산증감계정⁴⁸⁾으로 나뉘어 기록된다. 경상계정에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및 대가없이 이전되는 이전거래가 계상되며, 자본계정에는 내국인이 외국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는(유출) 거래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외국에서 빚을 얻어오는(유입) 거래가 기록된다. 준비자산증감계정은 대외거래로 인한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의 변동액을 계상하고 있다. 경상계정의 수지차를 경상수지, 자본계정의 유출입차를 자본수지라고 하며, 준비자산계정의 거래요인에 의한 외환보유액 증감을 준비자산증감이라고 한다. <그림 12-1>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진다. **상품수지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한다. 수출이 수입보다 크면 수지(차액)는 흑자(+)가 되며 반대로 수입이 수출보다 큰 경우 수지(차액)는 적자(-)로 된다. 그런데 국제수지표상의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작성 발표하는 통관 수출입통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통관통계는 상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선(關稅線)을 통과하는 시점에 수출입으로 계상하고 상품의 평가기준도 수출은 본선인도가격(FOB가격), 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포함가격(CIF

48) 자본계정과 준비자산증감계정을 합쳐 광의의 자본계정으로 볼 수도 있다.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되는데 반하여, 국제수지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계상하고 수출입 모두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거래로 수취한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말한다. 즉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나르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외국관광객이 국내에서 쓴 돈, 무역대리점의 수출입 알선수수료 수취 등이 서비스수입이 된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경비, 해외 여행경비, 특허권사용료 등은 모두 서비스지급으로 나타난다.

소득수지는 거주자가 외국에 단기간(1년 이내) 머물면서 일한 대가로 받은 돈과 국내에 단기로 고용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돈의 차이를 나타내는 **급료 및 임금(피용자보수) 수지**와 거주자가 외국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배당금·이자와 비거주자에게 국내투자 대가로 지급한 배당금·이자의 차이를 나타내는 **투자소득수지**로 구성된다.

경상이전수지라 함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수지**를 말한다. 경상이전은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국내의 친척 등에게 보내오는 송금, 종교기관이나 자선단체의 기부금과 구호물자, 정부간의 무상원조 등이 기록된다.

한편 **자본수지**는 **민간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외국으로부터 차입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빌리거나 이와는 반대로 외국에 신용공여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외화의 유출입차**를 나타낸다. 자본수지는 크게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투자수지는 다시 직접투자, 증권투자, 그리고 기타투자로 나누어진다.

직접투자는 **외국에 있는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등과 같이 영속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대외투자**를 말한다.⁴⁹⁾ 또한 직접투자에는 직접투자가와 직접투자기업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최초의 지분자본거래는 물론 직접투자가의 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등 채무거래도 포함된다. **증권투자**는 **외국과의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나타낸다. 그런데 동일한 주식투자라 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참여를 통한 영속적인 이익추구를 목적

49) IMF국제수지매뉴얼에서는 직접투자가 1인이 투자기초 지분의 10%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직접투자로 계상하도록 권고한다.

으로 하였을 때는 직접투자로 계상하며, 이와는 달리 단지 투자자본의 가치증가 또는 이윤획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증권투자로 기록한다. **기타투자는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기록한다. 여기에는 대출 및 차입, 상품을 외상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무역관련 신용,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가 기록된다.

기타자본수지는 자본이전과 비금융자산의 취득·처분이 포함된다. 자본이전은 현금 또는 현물로 이루어지는데 현금인 경우에는 거래일방 또는 양방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연관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는 투자보조금, 해외이주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물에 의한 자본이전에는 고정자산의 소유권 이전과 채권자와 채무자간 상호계약에 의한 채무면제 등이 포함된다. 비금융자산의 취득·처분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필요하지만 그 자체는 생산될 수 없는 토지나 지하자원 같은 유형자산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독점판매권 등이나 임차권 또는 기타 양도 가능한 계약 같은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이 포함된다.

준비자산증감은 외환보유액 변동분중 거래적 요인에 의한 것만 포함한다. 즉 외환보유잔액은 통화당국의 외환매입, 이자소득 등 거래적 요인에 의해 변동할 뿐만 아니라 거래없이 환율변화 등에 의해서도 변동하는데, 국제수지통계에서는 거래적 요인에 의한 외환보유잔액 변동분만을 준비자산증감 항목에 계상하고 있다.

실제로 작성된 우리나라의 국제수지표(표 12-1)를 보면 2005년중 경상수지는 165.6억 달러 흑자를 보였고, 자본수지는 4.9억달러 유입초를 보였으며 준비자산증감은 198.1억달러의 증가(유출초)를 보이고 있다.

그림 12-1

국제수지표의 구성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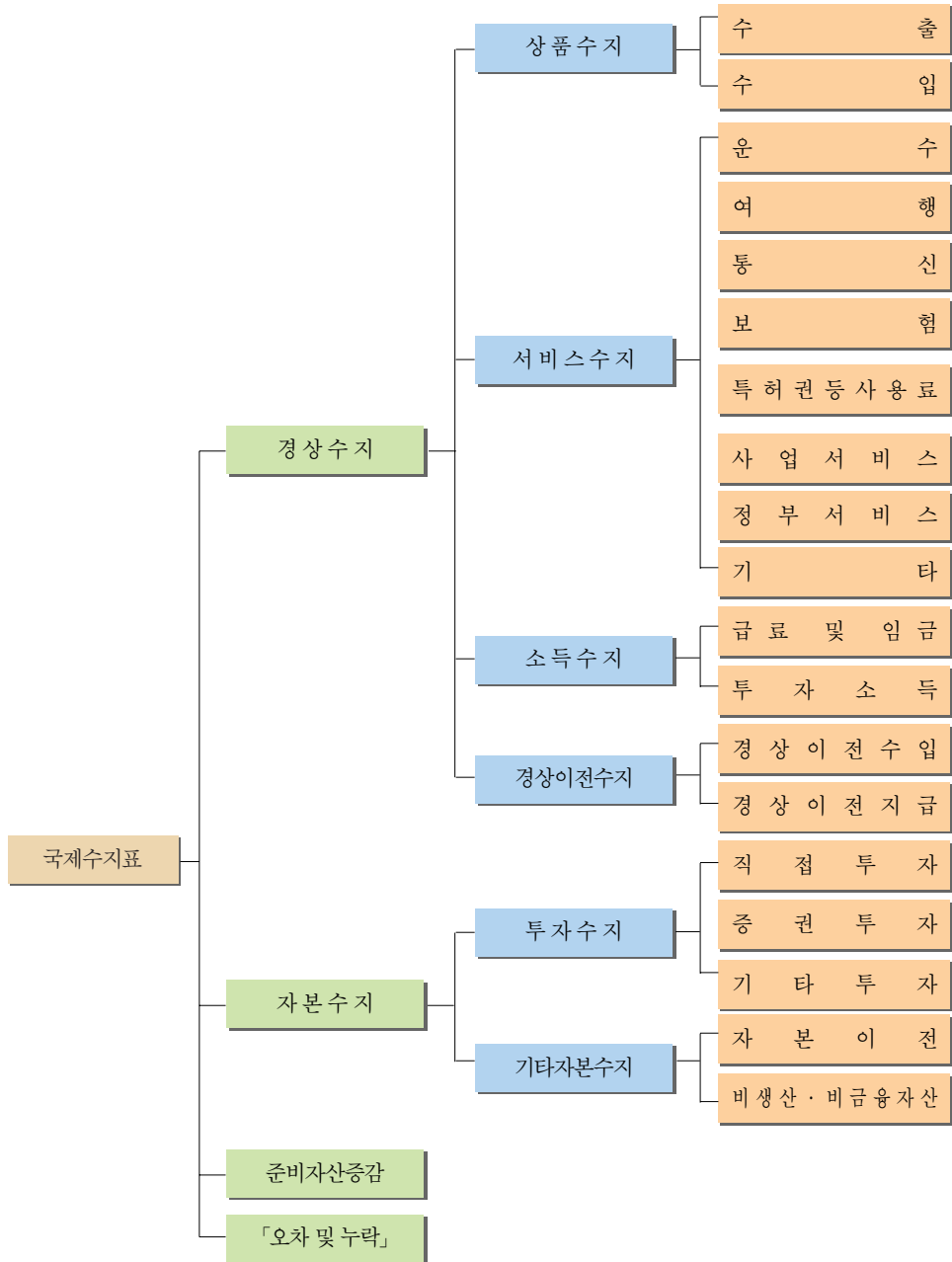


표 12-1

국제수지 요약표

(단위 : 억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p
경상수지	80.3	53.9	119.5	281.7	165.6
상품수지	134.9	147.8	219.5	375.7	334.7
수 출(FOB)	1,514.8	1,634.1	1,972.9	2,577.1	2,890.0
수 입(FOB)	1,379.9	1,486.4	1,753.4	2,201.4	2,555.2
서비스수지	-38.7	-82.0	-74.2	-80.5	-130.9
수 입	290.5	283.9	329.6	418.8	453.7
지 급	329.3	365.9	403.8	499.3	584.7
소득수지	-12.0	4.3	3.3	10.8	-13.2
수 입	66.5	79.0	71.8	94.1	102.4
지 급	78.5	64.7	68.5	83.3	115.6
경상이전수지	-3.9	-16.2	-29.0	-24.3	-25.0
수 입	66.9	73.1	78.6	91.5	101.2
지 급	70.7	89.3	107.6	115.8	126.3
자본수지 ¹⁾	-33.9	62.5	139.1	76.0	4.9
직접투자수지	11.1	-2.2	1.0	45.9	0.3
내국인투자	-24.2	-26.2	-34.3	-46.6	-43.1
외국인투자	35.3	23.9	35.3	92.5	43.4
증권투자수지	65.8	7.1	179.1	86.2	-13.2
내국인투자	-50.6	-37.4	-35.9	-74.0	-100.2
외국인투자	116.4	44.5	215.0	160.1	87.0
기타투자수지	-103.5	68.5	-27.0	-38.6	41.0
내국인투자	67.9	14.1	-51.3	-81.4	-39.7
외국인투자	-171.4	54.4	24.3	42.8	80.7
기타자본수지 ²⁾	-7.3	-10.9	-14.0	-17.5	-23.1
수 입	0.4	0.5	0.6	0.7	1.8
지 급	-7.7	-11.3	-14.6	-18.2	-24.9
준비자산증(-)감	-75.8	-118.0	-258.5	-387.1	-198.1
오차 및 누락	29.3	1.5	-0.1	29.4	27.6

주 : 1) 순유출입액 기준으로 (+)는 순유입, (-)는 순유출을 나타냄

2) 자본이전 및 비생산·비금융 자산취득수지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국제수지표 작성 실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앞에서 설명한 국제수지표의 작성방법을 적용해 국제수지표를 직접 작성하여 보기로 한다.

〈예〉

- 거래 1. 자동차 90백만달러를 현금으로 수출
- 거래 2. 철강재 10백만달러를 6개월후에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외상 수출
- 거래 3. 원유 80백만달러를 현금으로 수입
- 거래 4. 고철 5백만달러를 3개월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상 수입
- 거래 5. 국내 해운사가 수출화물의 화물운임대가로 외국으로부터 20백만달러를 받음
- 거래 6. 해외여행시 17백만달러의 여행경비 사용
- 거래 7. 외채에 대한 이자로 외국에 13백만달러 지급
- 거래 8. 국내친지가 해외교포로부터 현금 2백만달러를 송금받음
- 거래 9. 외국기업이 현금 50백만달러를 국내기업에 투자
- 거래 10.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외화증권을 30백만달러 발행
- 거래 11.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화증권 77억원을 발행(달러 환산시 7백만달러)
- 거래 12. 거주자가 외국으로 이민가면서 이주비용으로 15백만달러를 환전 송금
- 거래 13. 국내기업이 특허권을 외국기업에 매각하고 현금 3백만달러를 받음
- 거래 14. 한국은행이 국내외환시장에서 6백만달러 매입

국제수지표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대차양면에 동일금액이 계상되며 이전거래는 대차를 균형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항목을 설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위의 거래중 몇 가지를 계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거래 1〉의 상품 수출 90백만달러는 대변(실물자산 감소)에, 이에 따른 수출대금의 입금은 외화자산의 증가이므로 차변(금융자산 증가)에 90백

만달러를 계상한다. <거래 8>의 경우 해외교포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2백만달러는 외화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계상하며 대차균형을 위하여 대응거래인 경상이전거래 수입으로 대변에 2백만달러를 계상한다. 국내기업이 외화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하여 설비투자용 자금을 조달한 <거래 10>의 경우 외화증권의 발행 30백만달러는 대변(부채증가)에, 이에 따라 유입된 30백만달러의 외화자금은 차변(자산증가)에 계상한다. 상기의 거래내용을 분개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차 변		대 변	
거래 1	현금	90	상품수출	90
거래 2	무역신용공여	10	상품수출	10
거래 3	상품수입	80	현금	80
거래 4	상품수입	5	무역신용도입	5
거래 5	현금	20	서비스수출	20
거래 6	서비스수입	17	현금	17
거래 7	이자소득	13	현금	13
거래 8	현금	2	경상이전	2
거래 9	현금	50	직접투자	50
거래 10	현금	30	증권투자	30
거래 11	증권투자	7	현금	7
거래 12	자본이전	15	현금	15
거래 13	현금	3	자본이전	3
거래 14	준비자산증가	6	현금	6

동 분개내용을 국제수지표에 옮겨 적으면 <표 12-2>가 되는데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하면 마이너스의 준비자산증감과 일치하게 된다.

표 12-2

국제수지표 작성실례¹⁾

(단위 : 백만달러)

		차변(-)	대변(+)	수지	
경 상 수 지	상 품 수 지	80 ³ 5 ⁴	90 ¹ 10 ²	15	
	서 비 스 수 지	17 ⁶	20 ⁵	3	
	소 득 수 지	13 ⁷		-13	
	경 상 이 전 수 지		2 ⁸	2	
	소 계	115	122	7	
자 본 수 지	투 자	직접투자		50 ⁹	50
		증권투자	7 ¹¹	30 ¹⁰	23
	기 타 투 자	기타투자	90 ¹	80 ³	-62
			10 ²	5 ⁴	
			20 ⁵	17 ⁶	
			2 ⁸	13 ⁷	
			50 ⁹	7 ¹¹	
			30 ¹⁰	15 ¹²	
	3 ¹³	6 ¹⁴			
	기 타 자 본 수 지	15 ¹²	3 ¹³	-12	
소 계	227	226	-1		
준비 자산 증(-) 감		6 ¹⁴		-6	

주 : 1) 숫자 위의 첨자는 본문 예의 거래번호임

그러나 실제로 국제수지표를 작성하여 보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하면 마이너스의 준비자산증감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그 차이를 「오차 및 누락」(errors and omissions)이라는 조항목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오차 및 누락」이 발생하는 것은 국제수지표가 통관통계, 외환수급통계 등 여러 기관에서 각기 다른 목적으로 작성된 많은 기초통계를 이용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각 기초통계간의 계상시점 및 평가방법상의 차이나 기초통계자체의 오류, 통계작성과정에서의 보고 잘못이나 누락(human error)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오차 및 누락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12-3

주요국의 오차 및 누락률¹⁾

(단위 : %)

년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폴
2000	-0.2	-3.5	2.1	2.2	0.2
2001	1.0	-0.5	0.5	0.4	1.4
2002	0.0	-1.3	0.1	1.5	-1.5
2003	0.0	-1.9	-2.1	-1.7	-0.2
2004	0.6	3.7	-3.1	2.0	-0.8

주 : 1) 오차 및 누락률 = 오차 및 누락 ÷ 수출입합계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2005

적정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는 국민소득의 증대와 고용안정에 기여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증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는데 이중에서도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수지라 할 때는 경상수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경상수지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로 구분되는데, 이중 상품 및 서비스수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면 수출분만큼 수요가 증가하므로 생산 확대를 유발하게 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대되는데 반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서 수

입하면 수입분만큼 수요가 감소하므로 국내 기업이 생산을 축소하게 되어 급여 또는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수지는 소득 및 고용과 직접 관련이 있다.

상품 및 서비스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가 전체적으로 흑자를 나타내면 외국에 판 재화와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크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된다. 국제수지 적자국이 국제수지 흑자국에 대하여 자기나라로 실업을 수출한다고 비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벌어들인 외화로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어 외채가 줄어들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거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직접투자를 늘려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공급 부족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을 큰 부담없이 늘려갈 수 있게 되어 물가를 보다 쉽게 안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경기가 좋지 않아 경기부양책을 쓰고자 할 경우에도 수입증가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양책을 쓰기가 용이해지는 등 경제정책수단의 선택폭이 넓어져 경제를 보다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내면 소득은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외국빚이 자꾸 늘어나 원금상환과 이자부담이 커져 나중에는 빚을 얻기조차 힘들게 된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가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도 없는데,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통화량을 증가시켜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고 통상측면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교역상대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 수입규제를 유발시키는 등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내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이다.